

‘문화의 향기’로 가득한 설 연휴 어때요?

국립박물관 가면 ‘흥 한보따리, 복 한보따리’

민속놀이 체험·영화 상영 등 풍성한
한복 관람객엔 기념품 증정 이벤트
국립현대미술관 설 연휴 무료입장



우리 정단과 다양한 외국의 음악이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무대를 만날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공연 ‘설 놀이판 각자의 리듬:유희스카’. 예년보다 짧은 설 연휴를 가족과 함께 유익하게 보낼 수 있게 전국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진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예년보다 짧은 설 연휴다. 고향 다녀 오는 길에 다른 곳도 둘러서 여행을 하는 ‘D-턴’이나 고향서 부모님과 함께 여행 떠나는 ‘J-턴’을 하기에는 좀 빠듯하다. 그렇다고 명절 연휴 방학맞은 아이들과 마냥 집에 있기도 애매하다. 짧은 연휴를 알차게 보내는 ‘휴테크’의 아이디어가 절실한 상황에서 눈길을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돌려보자.

전국의 국립박물관과 미술관들은 24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기간에 대부분 설날 당일만 휴관한다. 과천과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은 아예 휴관없이 연휴 내내 문을 연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지방 소속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청주는

25일 설날만 휴관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는 27일 월요일 휴관한다.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은 설 다음 날인 26일 우리 전통장단과 외국 음악이 어우러지는 ‘설 놀이판 각자의 리듬:유희스카’를 공연한다. 지방 국립박물관(경주, 광주, 전주, 대구, 부여, 공주, 진

주, 청주, 김해, 제주, 춘천, 나주, 익산)에서는 24일, 26일, 27일에 설음식 만들기, 민속놀이 체험, 특별공연, 가족영화 상영 등의 행사가 열린다.

서울 경복궁 내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24일과 26일,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경자년 설맞이 한마당’이 열린다. 설 차례

상, 세배 등 설맞이 풍습을 알아보고, 제기차기, 투호 등 민속놀이와 전통 연, 한지 제기, 쥐띠 한지접시, 장신구 만들기 등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한복을 입은 관람객이 행사 참여 인증사진을 SNS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증정하는 ‘오늘의 한복 상’, 어린이 민속놀이 가상현실(AR) 체험 등도 실시한다.

서울 용산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26일 일요일 2회에 걸쳐 ‘음·소·음·소·음·소·음·소, Sound little Sound’을 공연한다. 피리, 생황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박지하와 프랑스 소리예술가 해미 클레멘세비츠가 국악기와 다양한 악기의 소리들을 활용한 창작음악을 선보인다.

이밖에 국립현대미술관(서울, 과천, 덕수궁, 청주)에서는 설 연휴 기간(24일~27일)에 무료 관람을 시행하고, 쥐띠 방문객에게 매일 선착순으로 100명씩 국립현대미술관 통합초대권(2매)을 증정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유통업계 “설 연휴, 프리미엄·혼명족 잡아라!”

〈편리함+프리미엄〉 〈혼자 명절을 보내는 이들〉

백화점·마트, 간편 제수음식 인기 UP
편의점, 1인 가구 명절 도시락 출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에 간편 제수음식과 혼명족 도시락 등 요즘 세태를 반영한 이색 상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간편 제수음식이 인기다. 비용을 들이더라도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는 상품을 더 선호하는 ‘편리미엄’(편리함+프리미엄) 트렌드의 영향

이다. 이마트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설 직전 일주일 매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년 사이에 간편 제수음식 매출이 20% 가량 증가했다. 만두 4종으로 구성된 현대백화점의 ‘원데이일 맛집 만두 세트’, 차려상 식재료로 구성된 켈러리아백화점의 ‘프리미엄 설 차려상 세트’가 대표적인 상품이다. 홈플러스는 26일까지 ‘실속 제수용품 모음전’을, 이마트는 29일까지 ‘설 명절 먹거리 페스티벌’을 진행해 간편 제수음식을 판매한다.



홈플러스의 ‘실속 제수용품 모음전’. 사진제공 | 홈플러스

편의점들은 ‘혼명족’(혼자 명절을 보내는 이들)을 위한 한정판 도시락 출시가 한창이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혼자 명절을 보내는 이들이 늘어난 데다 연휴에 문을 닫는 식당이 많다는 점에 착안했다. 세

븐일레븐이 최근 2년간 설과 추석 연휴의 도시락 매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장률이 2018년 25.9%, 2019년 23.5%로 매년 증가했다.

이번 설 연휴에 CU는 대형 스펀으로 만든 ‘대왕 스펀 닭밥 도시락’을, GS25는 빅사이즈 닭다리를 넣은 ‘완전크닭도시락’ 등의 이색 도시락을 선보였다. 또 세븐일레븐은 ‘한상도시락’, ‘사골왕만두한그릇’, ‘소반 사골떡국’을, 미니스톱은 ‘일품 소갈비 도시락’을 내놓았다.

김하영 세븐일레븐 푸드팀 상품기획자는 “혼자서도 간편하고 푸짐하게 명절 음식을 즐기도록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들을 선보였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마지막길 떠난 ‘위대한 거인’ 故신격호 롯데 창업주

월드타워서 영결식...울주군 선영 안치

19일 별세한 롯데그룹 창업주인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발인과 영결식이 22일 오전 엄수됐다.

발인은 이날 오전 5시45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빈소에서 진행됐다. 발인을 마친 운구는 고인의 숙원 사업이던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이동해 8층 콘서트홀에서 영결식이 열렸다. 영결식에는 아들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을 비롯해 유가족과 롯데 임직원 등 14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명예장례위원장 이흥구 전 국무총리는 추도사에서 “당신은 참 위대한 거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가 파헤치고 많은 국민이 굶주리던 시절 모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이 땅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며 “일생을 오로지 기업에만 몰두하셨으니 이제는 무거운 짐 털어내시고 평안을 누리시라”고 명복을 기원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영결식을 마친 뒤 운구행렬을 따르고 있다. 사진제공 | 롯데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을 대표해 “아버지의 가족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보며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배웠다”며 “역경과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오늘의 롯데가 있기까지 아버지가 흘린 땀과 열정을 떠올리며 길을 찾겠다”고 했다.

영결식이 끝나고 운구 차량은 롯데월드타워를 한 바퀴 돈 뒤, 고인의 고향이자 장자인 울산 울주군으로 떠났다. 이날 오후 고인은 울주군 선영에 안치됐다. 정정욱 기자

동아일보배 대상경주 2월 16일 개최

동아일보배 대상경주 경마가 2월 16일 열린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2월 서울 경마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10일간 116개의 경주가 펼쳐진다.

토요일에는 서울 12개, 제주 6개 경주가 열린다. 단, 2월 1일에는 서울 13개 경주, 제주 6개 경주를 시행한다. 일요일은 서울 11개, 부경 6개 경주가 펼쳐진다. 한 경주

당 최소 8두에서 최대 12두가 출전할 예정이다. 대상경주는 최대 14두까지 출전할 수 있다. 첫 경주는 오전 10시 45분, 마지막 경주는 오후 6시 정각에 출발한다.

2월 16일에는 3세 이상 산지 혼혈 암말들이 1800m 거리를 경주하는 동아일보배 대상경주가 개최된다. 총 상금 2억5000만 원으로 최강 암말을 가리는 첫 경주다.

서울 경마공원의 입장시작은 금요일은 오전 9시 30분,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이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법정구속 피해

2015년 신한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사진) 신한금융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해 사실상 연임을 확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채용비리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은 조 회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사팀에 특정인을 합격시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지원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조 회장이 법정 구속을 피하면서 신한금융은 지배구조 불확실성의 우려를 씻어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원이 채용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정욱 기자

에듀윌

영어 정리·반복 학습으로 기초 다지기

주택관리사 합격 지름길은 ‘기본 용어’에 있다



주택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절대 놓쳐선 안될 기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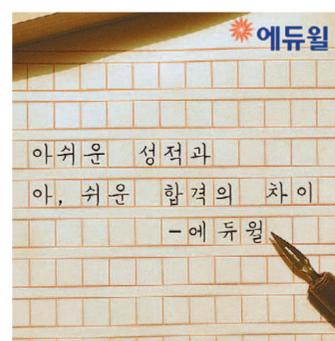
의 기본은 무엇일까? 주택관리사 시험 합격생 강 모씨는 “사례형 출제가 많은 민법이나 낯선 용어가 많은 시설 개문은 용어에 대한 확실한 이해 없이 실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때문에 초반에 기본

용어를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싶다”며 용어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초만 잘 쌓으면 심화 학습이나 문제풀이 등 이후의 학습 과정들이 수월해진다. 특히 상대평가 도입으로 고득점 획득이 필수가 된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탄탄한 기초는 더욱 중요하다. 이에 2019 한국브랜드 만족주주 주택관리사 교육 1위에 빛나는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1위의 노하우를

담은 ‘주택관리사 기초용어집’을 통해 수험생들의 기초 다지기를 지원한다.

에듀윌 기초용어집은 최근 10개년 기출을 분석하여 합격에 꼭 필요한 용어만 한 권으로 압축 정리했다. 같은 용어, 같은 개념이라도 과목별로 중요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방대한 주택관리사 용어를 과목별 중요도를 고려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시험에 출제가 유력한 용어는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개념 정리, 확인 문제, 인덱스까지 3단계로 구성했다.



경제

2020년 1월 23일 목요일 **15**

스포츠동아

설 연휴 날씨

지역	23 목요일	24 금요일	25 토요일	26 일요일	27 월요일
서울	10/0 2 9	0/10 -1 6	0/10 0 8	0/10 1 9	10/20 2 7
대전	0/10 3 8	0/10 -1 9	0/10 0 9	0/10 2 9	20/30 2 8
전주	0/10 5 10	0/10 1 9	0/10 1 9	0/20 1 10	20/30 3 10
광주	10/0 7 11	0/10 3 7	0/10 3 7	0/10 4 11	10/30 3 11
부산	10/0 9 14	0/10 6 14	0/10 6 14	0/10 7 11	10/20 7 11
제주	10/0 13 14	0/10 9 12	0/10 9 12	10/20 9 11	20/30 9 12
충청	10/0 -1 7	0/10 -3 7	0/10 -3 7	0/10 -2 8	10/20 0 6

스포츠동아

대표전화 02-361-1610

발행인	이인철	편집부장	좌혜경
편집인	이성준	스포츠부장	김도현
편집국장	연제호	엔터테인먼트부장	윤여수
광고국장	이승욱	경제부장	김재범
인쇄	동아일보사	뉴미디어전략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기사 의견 제보 및 독자 투고 02-361-1616 sol@donga.com